



“너희들이 정답이다”

‘3점슛 군단’ DB를 만든 한마디

이상범 감독 신뢰 리더십에 선수들 자신감
너도나도 3점슛…SK전 28점차 역전의 힘
두경민 “내 밸런스 잡혔을 때 자신있게 슛”

원주 DB는 ‘공포의 3점슛’으로 중무장한 팀이다.

외국인센터 로드 벤슨(33)을 제외하고는 경기를 뛰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3점슛을 던진다. 시도 자체도 압도적으로 많다. DB는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21경기를 치르는 동안 총 585개의 3점슛을 시도했다.

10개 팀 가운데 500개 이상의 3점슛을 시도한 팀은 울산 현대모비스(551개) 뿐이다. DB는 이보다도 34개나 더 시도했다. 3점슛 시도가 가장 적은 서울 삼성(373개)과는 무려 212개 차이다. 585개의 3점슛을 시도해 204개가 림에 꽂혔다. 성공률은 34.9%(4위)다.

DB는 12일 28점차 대역전승(95-94)을 일궈낸 SK와의 원정경기에서는 무려 43개의 3점슛을 시도(18개 성공)했다. 2점슛 시도(35개)보다 3점슛 시도가 더 많았다. 2쿼터 한 때 28점차까지 뒤졌던 DB가 기적같은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경민, 김주성, 김태홍, 디온테 버튼의 무더기 3점슛이 터졌기 때문이다. ‘너무 외곽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다.

DB선수들은 3점슛 시도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 연속으로 3점슛을 놓친 선수들은 의기소침

할 법도 하지만, DB는 다르다. 말 그대로 스텝만 맞으면 너나 할 것 없이 3점슛을 던진다.

여기에는 이상범(49) 감독의 지도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오프시즌 팀 훈련 기간 내내 ‘감독의 말이 늘 정답일 수는 없다.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경기당 2~3개씩 3점슛을 터뜨리는 슈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완전한 오픈찬스가 아니면 3점슛을 주저한다. 또 팀 공격의 틀이 잡히기 전에 장거리 슛을 쏘면 감독의 질타를 받으며 벤치로 들어와야 한다. 감독이 원하는 타이밍보다 빠르게 슛을 쏘 공격을 무산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DB의 농구는 정답이 없다. 찬스를 맞은 선수가 자신의 밸런스에 맞춰 볼을 잡았다면 타이밍이 빠르던, 늦던 상관없다. 오히려 슛을 주저하면 교체 되어 벤치로 나와야 한다. DB의 두경민(26)은 “우리 팀의 농구를 볼 때 ‘왜 그렇게 빨리 슛을 던지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감독님이 늘 ‘뛰는 선수들이 잘하는 플레이가 정답이다’고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내 찬스에 내 밸런스가 잡혔을 때 슛을 던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자신 있게 던진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우리 선수들은 늘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이상범 감독은 선수들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존의 편견을 모두 깬 정답 없는 DB의 농구가 리그를 뒤흔들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이상범 감독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의 유연성이 DB 선수들을 출주케 하고 있다. 누구나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용감하게 3점슛을 쏘는 DB의 농구는 12일 SK전에서 28점차의 경기를 뒤집는 기적을 만들었다. DB 두경민이 3점 슛을 날리는 모습. 사진제공 | KBL



이대성

KBL 복귀전 미뤄지는 이대성…왜?

〈현대모비스〉

G리그 이리와 서류절차 마무리 안돼
시간 지체 땀 주말경기도 땔 수 없어

울산 현대모비스로 돌아온 이대성(27)의 복귀전이 미뤄질 전망이다.

이대성은 4일(한국시간) 미국프로농구(NBA) 하버리그인 G리그 이리 베이호크스에서 방출된 뒤 고민 끝에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12일 입국해 팀에 합류했다. 현대모비스는 1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삼성과 홈경기를 치른다.

이대성은 이날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적동의서 발급 등 서류절차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리그 측은 선수들의 무분별한 이탈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 놓은 상태다.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뛰기가 어렵다.

현대모비스는 이리 구단 측에 서류절차 과정을 빨리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일단 14일 삼성 전에서는 뛰기 어려울 것 같다. 서류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번 주말경기도 땔

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서류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KBL에 이대성을 소속선수로 등록시키고 경기에 출전시킬 예정이다.

이대성은 13일 복귀 뒤 첫 팀 훈련을 소화했다. 당장 출전은 어렵지만, 시즌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서 가용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구단에게는 전력 플러스 요인이다. 현대모비스 유재학(54) 감독은 “여름에 G리그 진출을 준비하며 미국에서 몸을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그런지 근력이 좀 떨어져 있더라.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라 몸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감독은 “(이)대성이가 경기에 출전한다고 갑자기 팀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수비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수비만큼은 국내에서 대성이 만한 선수를 찾기 힘들다. 공격에서는 국내선수들 보다 신체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해 왔으니 돌파가 쉽지 않을 거 생각한다. 양동근, 함지훈, 전준범과는 같이 뛰 경험에 있지만, 마커스(블레이클리), 레이슨(테리)과는 뽀짝이 없어서 손발을 맞춰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배구



인삼공사 알레나는 부상으로 1세트에만 잠시 출전했다. 1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GS칼텍스-인삼공사전은 알레나의 공백 탓에 GS칼텍스 외국인선수 듀크(가운데)의 독무대가 됐다.

장충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듀크 24득점·범실 0…GS칼텍스 ‘퍼펙트 승리’

강소휘 표승주 리시브서 제역할
알레나 공백 인삼공사 3-0 격파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팬 서비스는 ‘경기력’이라는 말이 있다. 프로선수들은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관중들에게 항상 양질의 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GS칼텍스의 외국인선수 파토우 듀크(32)는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KGC인삼공사와의 3라운드 맞대결에서 이 의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다.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이며 2017년 마지막 홈경기

를 찾아준 팬들에게 화끈한 연발 선물을 했다.

듀크는 3세트까지 24득점을 올리며 공격성공률 58.97%를 기록했다. 특유의 탄력을 앞세운 빠른 공격으로 매 세트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특히 공격 순도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3세트까지 범실을 단 한개도 기록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3세트 중반 듀크를 빼는 여유까지 보이고도 세트 스코어 3-0 승리를 챙겼다. 3라운드 들어 처음으로 거둔 승리에 선수들은 경기 후 서로 끌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승리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는 강소휘와 표승주의 ‘버티기’도 있었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경기 전 “강소휘와 표승주가 리시브에서 버티줘야 한다”며 둘의 역할을 강조했다. 둘은

이전 경기보다 확실히 높아진 집중력을 자랑하며 상대 공격을 받아냈다. 차 감독은 경기 후 “1세트 이후 선수들이 안정감을 찾았고, 상대 알레나가 빠져 있다 보니 부담을 덜은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듀크의 높은 공격순도가 미친 순기능에 대해서 덧붙였다. 그는 “듀크가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리시브 부담을 덜었다. 리시브가 안 좋았을 때도 공격을 성공시켜 (동료들의) 체력 부담을 줄여줬다. 자신이 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졌다”고 칭찬했다.

듀크는 “범실이 없었다는 것을 경기 끝나고도 알지 못했다. 근육통이 있어 걱정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충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열여덟살’ 임동혁 성장이 흐뭇한 박기원 감독

〈대한항공〉

14서브 중 5득점…장신 공격수로 기대
박 감독 “장기적으로 라이트 육성할 것”

대한항공은 2016~2017시즌부터 2년 연속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고졸 선수를 지명했다. 2016~2017시즌 전체 3순위로 허수봉(현대캐피탈)을 뽑았고, 2017~2018시즌에도 제천산업고를 졸업한 임동혁(18)을 전체 6순위로 지명했다. 2m1cm의 장신 공격수로 기대가 큰 자원이자,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은 임동혁을 두고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고 뽑았다”고 밝혔고, 임동혁은 “조금이라도 빨리 프로에 진출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기대했다.

임동혁은 데뷔전인 11월 14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대한항공전에서 4득점(2서브)을 기록하며 희망을 키웠다. 12일 의정부 KB손해보험전까지 3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8득점이 전부지만, 강력한 서브와 시원시원한 공격으로 잠재력을 뽐냈다. 특히 서브는 임동혁의 최대 강점인데, 14차례 서브 시도에서 5득점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박 감독은 “기를 살려주기 위해 몇 차례 서브 기회를 주는 것 뿐”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대학과 프로무대도 수준이 다른데, 고교와 비교하면 어땠겠나. 블로킹 높이도 천지 차이다. 본격적으로 경기에 투입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완성형 선수가 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동혁

그럼에도 임동혁의 활기찬 모습에는 엄지를 치켜세운다. 박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패기를 강조하는 지도자다. 주눅 들지 않고 종횡무진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보면 무척 흐뭇해한다. 송림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에 뛰어들어 5시즌째를 보내고 있는 정지석을 두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박 감독은 임동혁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밝고 당찬 모습이 좋다. 굉장히 활기차다.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보다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흐뭇해했다.

박 감독은 임동혁을 미래의 라이트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임동혁의 최대 강점인 공격력을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레프트 훈련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라이트에 비중을 뒀야 한다.” 박 감독의 임동혁 육성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신인들이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최근 배구의 흐름을 보면 더욱 그렇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부왕’ 문성민, 포항 지진 이재민에 1000만원 선뜻

〈현대캐피탈〉

2017 동아스포츠대상 상금 전액 기부

현대캐피탈 문성민(31)이 기부 약속을 이룰 만에 지쳤다. 문성민은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 남자프로배구 ‘올해의 선수’ 상을 수상했다. 문성민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상금을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혀 갈채를 받았다.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스포츠대상’ 상금 1000만원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문성민은



문성민

2016년도에 ‘CMS와 함께하는 2016 동아스포츠대상’을 수상했다. 당시에도 상금 500만원을 전액 유소년 배구 발전기금을 위해 내놓았다. 상금이 2배로 늘었어도 마음은 변치 않았다.

결국 그는 1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원을 보냈다. 사회공헌활동에 헌신해 전설이 된 메이저리거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연상시키는 문성민의 행보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